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기업과 간담회 및 정책 제안식 개최

- 석유화학업계, 울산의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세액공제 확대 등 건의
- 안 의원,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및 분산형 전력 시스템 구축 적극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의원)은 15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겸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민주당 안도걸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장과 울산시당선대위 이선호 상임선대위원장, 박성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대표로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태광산업, 효성화학, SK어드밴스드, SK가스,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비롯한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참석한 석유화학산업단지 업체 관계자들은 ▲울산의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친환경소재·고기능 제품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전기료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울산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선행여건 충족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없이 첨단 소재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투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 연구개발 인재들이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자생적 초광역 경제권 육성 법안도 제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자산지소’의 분산형 전력 활용시스템 구축 등도 정책공약에 반영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 법률 발의 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5.1.20.),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4.7.31.)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지역 산업으로서 석유화학산업의 도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앞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산업과 지방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사진]



